

구례군에 전국 오이 전문가 모였다

오이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현장 컨설팅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 지도할 계획”



전국 최고기술 수준의 오이분야 전문지도사 10여 명이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전남 구례군에서 과제교육, 재배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에 구례군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 산하의 자율적인 오이 연구모임체인 오이전문지도연구회(회장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장원식)로, 회원 간의 기술·정보 교류와 연구 활동을 통해 현장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날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장을 비롯한 오이전문지도연구회원 4명이 과제발표를 하며 올해 오이 작황을 비교·분석하고 각 지역의 오이 재배 농가 현장 컨설팅 사례, 최신 재배 기술 정보를 공유했다.

둘째 날은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스마트팜 임대농장과 일반재배 농장을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온도관리 기술, 양분 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 기술을 지도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례군의 전국 최고 품질 오이 생산단지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한복문화 체험 행사 추진

읍과면민의 날과 함께하는 한복 활용 문화 프로그램

곡성군이 지난 22일 옥과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한복 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복 문화 체험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추진된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축적된 한복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제13회 옥과면민의 날과 연계해 곡성문화원과 함께 ‘문화를 잇는 행복한 일상’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한복 입고 인생샷, 웃고 춤 행복나 무, 전통 놀이 문화마당인 3가지 주제가 마련됐다.

‘한복 입고 인생샷’은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한복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식 한복부터 조선시대 의복을 재현한 한복까지 구비했다.

참여자들은 과거 금제자처럼 액상과 어서화를 착용하거나 무관이 입던 군복과 전립, 예복으로 쓰던 당의와 쓰개치마, 도포, 족두리, 갓 등 다양한 전통의상을 입어봤다. 특히 한복 입

은 도깨비 캐릭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주민들은 연신 미소를 지었다.

또한 한복 저고리 웃고춤 매는 법이 생소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한복 원단에 소원을 적어 ‘옥과면 행복나무’에 웃고춤을 직접 매어보는 이색 이벤트도 마련됐다.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세대공감 전통놀이 문화마당’에서는 활쏘기, 제기차기, 윷놀이, 가마 타기 체험으로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오는 29일에는 임원 신비람문화센터에서, 5월 13일에는 석곡면 석곡초등학교에서 면민의 날에 맞춰 지역주민들과 향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복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한복을 지역 주민과 문화를 잇는 매개체로 활용해 한복생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 일상을 문화로 만드는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6월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채납액 징수 총력

성실납세자 형평성 제고·조세 정의 실현

나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나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외수입 채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채납고지서 일괄 발송하고 반송분은 채납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상속·고액·고질 채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채납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납부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채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080-339-0365), 위택스(Wetax) 등에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과태료, 점용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납부 환경 조성, 자발적 납세를 통한 불이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노지 고추정식은 늦서리 이후 심어주세요

화순군은 노지 고추 정식시기를 맞아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적기 정식 및 정식 후 관리를 당부했다.

노지 고추의 올바른 정식시기는 늦서리 피해가 없는 5월 상순경이다. 특히 지난 2022년 5월 3일, 화순군 지역에 늦서리가 발생하여 노지 고추 피해가 컸던 만큼, 늦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식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종은 바이러스 및 병충해 피해를 입지 않은 건강한 모종을 사용해야 하며, 뿌리의 노화가 없고 흰색의 굵은 뿌리가 잘 발달 된 모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종은 정식 5~7일 전

부터 외부 기온과 비슷하게 맞춰 미리 환경에 적응시켜주는 순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식 후 생육 증진에 효과적이다.

고추는 최저온도 15℃ 이상의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오전에 식재해야 뿌리 활착에 좋다. 정식할 곳에 구멍이를 파고 물을 채운 후, 정식하는 구멍이 관수를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다.

한편 고추는 최저온도 0℃ 이하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식생이 약해 바이러스, 탄저병 등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박순철기자**



이와 관련하여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고추 우량 신품종 재배 실증사업’을 통해 복합내병계 품종을 40 농가에 공급하고 시기별 재배기술 지도를 통한 노지 고추 안정생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추진

담양군이 오는 6월 16일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집중안전점검은 노후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해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안전예방활동을 말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산사태 위험지역, 문화재, 유원시설, 도로 등 40개소를 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대상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점검 대상 시설물 외에도 관리 주체인 군민이 내 집, 내 점포가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 표도 제작·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더욱 안전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